

# 2018년 시행 고3 수능 국어 해설

본 해설은 현직 선생님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손수 만드신 재창작물입니다.  
따라서 본 해설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1	①	2	③	3	③	4	④	5	④
6	⑤	7	③	8	②	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①	19	③	20	①
21	⑤	22	①	23	④	24	②	25	⑤
26	⑤	27	②	28	⑤	29	④	30	⑤
31	②	32	②	33	①	34	④	35	③
36	⑤	37	⑤	38	④	39	①	40	②
41	③	42	④	43	①	44	③	45	④

[1~3] 화법

[지문 분석]

**혹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질문을 통해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함.) **예전에 제가 밤길을 혼자 걷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어둡고 무서웠지만 달빛 덕분에 어렵지 않게 걸었답니다.**(방송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 ‘달빛’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제시)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달빛 같은 방송,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상담해 주는 ‘나에게 말해 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심리 상담가 ○○○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라고 해요. 제 친구는 자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고 손재주도 좋은 친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타까워요. 또 작은 실수에도 “난 항상 이래.”라며 자책하고 우울해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돕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사연 신청자의 궁급증, 사연을 신청하게 된 계기)

□□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사연 내용을 정리함.)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님처럼 안타깝네요.**(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함.)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시함.)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가 있습니다. 사연 속 친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장점 말해 주기**’(친구를 도와줄 방법①)와 ‘**감정 헤아려 주기**’(친구를 도와줄 방법②)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친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자주 말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장점 말해 주기의 방법과 효과)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만약 친구가 실수해서 자책하고 있으면 “**많이 속상하겠구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의 예)라며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식으로요. **그러면 친구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책하지 않을 거예요.**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의 효과)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방송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과 끝에 모두 질문을 사용하여 청취자의 관심을 환기함.)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청취 소감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그럼 △△의 노래 ‘우리 함께’를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지문 확인]

- 갈래: 라디오 방송
- 주제: 자존감이 낮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 특징
  - 방송의 시작과 끝에 질문을 사용하여 청취자의 관심을 환기함.
  - 사연의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함.
  -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설명함.
  - 자존감이 낮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의 효과와 예를 제시함.

1. <답> ①

<정답률> 95%

<정답 풀이>

방송 진행자는 ‘□□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라고 말하며 앞서 읽은 사연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저도 □□님처럼 안타깝네요.’라고 말하며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방송 진행자가 자존감이 낮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며 사연 신청자의 궁급증을 해소해 주고 있지만,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방송 진행자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청취 소감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청취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심리 상담가 ○○○입니다.’를 통해 방송 진행자의 직업이 심리 상담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송 진행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방송 진행자가 사연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방송 진행자는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시작과 끝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사연 속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지도 않다.

<TIP>

이 문제는 말하기 전략을 묻는 문제이다. 선지에서 미리 말하기 방식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들어가면서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2. <답> ③

<정답률> 96%

<정답 풀이>

방송 진행자는 사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에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에서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연 속 친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네요.’를 통해 앞서 말한 원인을 사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먼저 친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자주 말해 주세요.’라며 ‘장점 말해 주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그러면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라며 ‘장점 말해 주기’ 방법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많이 속상하겠구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를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의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그러면 친구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책하지 않을 거예요.’를 통해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말하기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제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 보다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이다.

3. <답> ③

<정답률> 87%

<정답 풀이>

‘칭취자 3’은 딸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딸에게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 줘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방송에 나온 방법인 ‘장점 말해 주기’ 방법을 딸에게 적용해야겠다고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적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칭취자 1’은 기대와 달리 방송 내용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안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즉 ‘칭취자 1’이 방송을 들은 목적은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기 위함인데, 이 목적과 관련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② ‘칭취자 2’는 방송에서 나온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 안내되지 않았던 방법인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 방법의 효과(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를 예측하고 있다.
- ④ ‘칭취자 4’는 도와주고 싶은 대상의 연령대가 사연 속 친구(고등학생)와 다를 때에도 방송에서 나온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칭취자 4’는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칭취자 5’는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건 좋은 방법’이라며 방송에서 언급한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직설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있다.

<TIP>

이 문제는 배점이 3점이지만 쉬운 문제로,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표제]**(기사문의 제목으로,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어구나 문장임.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표제를 보충하기 위해 부제를 달기도 함.) **성금 마련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전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부분으로 전체 기사의 핵심 내용에 해당함.) 지난 10월 4일(언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누가)은 K군을 돕기 위해(왜) 응원 메시지를 달고(어떻게)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무엇을)**

**[본문]**(사건이나 상황을 자세하게 풀어서 쓰는 부분) 선생님 32명과 학생 174명이 함께 달린 이 행사는 **K군(2학년)의 쾌유를 기원(행사를 주최한 이유)**하기 위해 **학생회(행사를 주최한 주체)**가 주최하였다. 한 달 전 교실에서 쓰러져 입원한 K군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병원비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미가 컸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선생님 32명과 학생 174명)**은 모두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 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 △△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내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 공원을 찾았다. 마라톤이 끝난 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성금을 기탁한 시민도 있었다. K군의 담임선생님은 “친구를 돕기 위해 학생회가 앞장선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문 확인] (가)

- 갈래: 기사문(의 초고)
- 주제: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
- 특징
  - 기사문의 구성요소인 표제, 전문, 본문이 드러남.
  - ‘어디에서’를 제외한 육하원칙이 잘 드러남.

[지문 분석] (나)

- 학생1 :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다룬 기사문을 검토할게.
- 학생2 : 이 기사문은 내가 작성한 거지?
- 학생3 : 응, 초고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 학생1 :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육하원칙(기사문은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에 따라 씀.)** 중 **빠진 내용(‘어디에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 학생3 : 네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학생1의 제안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함.)**
- 학생1 :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드러나지 않잖아.
- 학생3 :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학생1의 의견에 동의함.)**
- 학생1 :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보는 건 어때?
- 학생2 : **그러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잖아. 대신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표제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학생1의 제안에 대해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한 후 다른 대안을 제시함.)

학생1 : 네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기사문의 의도가 살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표제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2의 제안에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포함.)

학생3 : 두 의견을 들어 보니, 네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학생1의 의견에 동의함.)

학생1, 2 : 응, 그래.

학생1 :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 논의하자.

학생3 :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 했는데, 어때?(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지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음.)

학생2 : 응,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

학생3 :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이상해?

학생2 :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

학생3 : 응원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한 거라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학생2 :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루어야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기사문은 잘못되거나 빠진 정보가 없이 정확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보를 전달해야 함.)

학생1 :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

학생3 :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수정해 올게.

학생1 :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기사문의 마지막에 담아야 할 내용①)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학생3 : 아, 맞아. 지난 회의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잊었네. 거기에 학생 인터뷰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넣고.

학생1 : 응,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기사문의 마지막에 담아야 할 내용②)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

학생2 : 행사 이후 결과(기사문의 마지막에 담아야 할 내용③)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어.

학생3 : 고마워. 지금까지 나온 의견 모두 반영해서 써 볼게.

학생1 :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학생2 :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1 : 지금 다시 읽어 보니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이 있어. 그걸 삭제하면 글의 분량이 줄어들 것 같아.(지면의 크기를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된 문장을 삭제함.)

학생3 : 지면의 크기도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써야 하는구나.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학생2 : 아, 그리고 성금을 5천 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만 원씩 내셨어. 사실에 맞게 본문을 수정해 줘.

학생3 : 그렇게. 처음 써 본 기사문이라 부족한 게 많아.

학생1, 2 : 팬찮아. 기사 쓰느라 고생했어.

[지문 확인] (나)

- 갈래: 회의
- 주제: 기사문 초고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
- 특징
  - 기사문의 의도를 고려하여 표제를 수정하기로 함.
  - 기사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추가하기로 함.
  - 기사문이 실릴 지면의 크기를 고려하여 글의 분량을 조절하기로 함.

4. <답> ④  
<정답률> 87%  
<정답 풀이>

(나)에서 학생들은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 그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에는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셨다는 내용이 없고,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썼다는 내용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학생들은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에서 중심 소재인 ‘사제동행 마라톤’을 담았으며,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작은 물방울들 하나 되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는 적절하다.

② (나)에서 학생들은 [전문]에서 빠진 육하원칙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의 [전문]에는 육하원칙 중 ‘어디에서’가 빠졌는데, ㉢에서 이에 해당하는 ‘△△ 공원 일대에서’를 추가하였으므로 ㉢는 적절하다.

③ (나)에서 ‘학생 2’는 ‘성금을 5천 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만 원씩 내셨’으니 ‘사실에 맞게 본문을 수정해’ 달라고 하였다. ㉣에서 ‘선생님은 1만 원씩, 학생은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라고 문장을 수정하였으므로 ㉣는 적절하다.

⑤ (나)에서 학생들은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가)의 [본문]의 ‘△△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 응원을 보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 공원을 찾았다.’에서 중복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와 같이 ‘이날 많은 시민들이 △△ 공원을 찾았다.’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TIP>  
이 문제는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나)를 읽으면서 (가)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리하며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5. <답> ④  
<정답률> 80%  
<정답 풀이>

(나)에서 학생들은 (가)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④에서 ‘장소 섭외가 힘들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에서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드러나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에서 화합이 드러난다. 또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 모금

된 성금은 K군 가족에게 전달됐다.’를 통해 행사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행사 홍보가 힘들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에서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드러나며,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달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내용에서 화합이 드러난다. 하지만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에서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드러나며, ‘행사에서 모인 성금은 다음 날 학생회장이 대표로 K군 가족에게 전달했다.’에서 행사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에서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K군 가족은 성금을 전달받고, 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에서 행사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달리며’에서 화합이 드러나며, ‘학생회에서 성금을 K군 가족에게 전달했다.’에서 행사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는 확인할 수 없다.

<TIP>

이 문제는 내용 생성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나)를 읽으면서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파악한 후, 선지의 내용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6. <답> ⑤

<정답률> 89%

<정답 풀이>

㉠에서 ‘학생 2’는 지면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글의 분량을 언급한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는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한 ‘학생 1’의 제안에 대해 ‘학생 3’은 표제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학생 1’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표제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제안대로 표제를 수정하면 기사문의 의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③ ‘학생 3’은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났는지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다.

④ ‘학생 1’의 발화인 ㉠을 통해 이전에 학생들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의 발화를 통해 ‘학생 3’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것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학생 1’의 발화인 ㉠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한 것을 상대에게 환기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TIP>

이 문제는 토의의 내용과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 ㉡, ㉢, ㉣은 모두 의문문인데, 어떤 의도를 담은 의문문인지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7. <답> ③

<정답률> 70%

<정답 풀이>

[A]에서 ‘학생 3’은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 3’은 표제에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표제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한편 [B]에서 ‘학생 3’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제를 수정하자는 ‘학생 1’의 의견과 표제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3’은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학생 1’의 제안을 수용한다.

② [B]에서 ‘학생 2’는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된다면 다른 사실을 빠뜨린 ‘학생 3’을 비판하고 있다. ‘학생 1’도 ‘학생 2’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만,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에서 ‘학생 2’는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생 1’은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라고 말하며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즉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학생 1’은 표제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학생 2’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제를 수정하자는 ‘학생 1’의 의견을 점검하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학생 2’는

<TIP>

이 문제는 담화의 유형과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학생 1~3’이 각각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헷갈리지 않고 잘 파악해야 한다.

[8~10] 작문

[지문 분석]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학생이 쓴 글 (다)의 갈래)**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예상 독자의 사전지식 확인)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예상 독자의 관심 확인)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5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로봇의 발달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님.) ... (중략)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내용임.) ... (중략)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로봇세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다.

- 로봇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글을 쓰게 된 배경)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로봇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일부 독자들을 위해 로봇세의 개념 제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로봇세 도입의 목적)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글쓴이는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임.)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①)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전문가들의 의견 제시)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②)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③)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

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로봇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운 점)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문 확인]

- 갈래: 주장하는 글
- 주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반대
- 특징
  - 예상 독자의 사전지식을 고려하여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함.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함.

8. <답> ②  
 <정답률> 80%  
 <정답 풀이>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다)의 1문단에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의 도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은 (다)에서 밝히고 있는 로봇세 도입 목적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은 ‘로봇세의 납부 주체’에 해당한다.

③ (다)의 1문단의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의 도입의 목적이다.’를 통해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글쓴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글쓴이는 (다)의 3문단에서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⑤ (다)의 4문단의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제기된 로봇세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는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글쓴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산업 혁명)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TIP>  
 이 문제는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이다. (가)의 ㉠~㉢에 해당하는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이 (다)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며 (다)를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9. <답> ②  
 <정답률> 71%

<정답 풀이>

㉞의 사례로 (다)의 2문단에서 ‘모바일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㉞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즉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의 1문단의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를 통해 ㉞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3문단의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를 통해 ㉞를 활용하여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3문단의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를 통해 ㉞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3문단의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를 통해 ㉞에서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자료 수집과 활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다)를 읽을 때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며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10. <답> ②

<정답률> 89%

<정답 풀이>

<보기>는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일자리 감소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로봇의 생산 능력으로 인해 로봇의 발달은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A]는 역사적으로 볼 때(산업 혁명)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으므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입장에 따라,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로봇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사례(산업 혁명)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내용이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A]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A]에 대해 반박하려면 일자리

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③ <보기>는 로봇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A]에 대한 반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는 기업의 로봇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A]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A]에 대한 반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로봇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로봇의 생산성 증가가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A]는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은 [A]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아니라 [A]와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TIP>

이 문제는 내용 생성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A]와 <보기>에서 주장하는 바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파악한 후 선지의 관점을 살펴야 한다.

[11~15] 문법

11번 문법 이론: 최소 대립쌍, 국어의 단모음 체계

• 최소 대립쌍: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음운을 가진 단어들의 쌍. 예를 들어 ‘불’과 ‘풀’은 다른 음운인 ‘ㅂ’, ‘ㅍ’에 의해 의미가 달라진다.

•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	ㅐ	ㅑ	ㅓ	ㅗ
저모음	ㅔ		ㅕ	

11. <답> ③

<정답률> 65%

<정답 풀이>

<보기>의 [A]에서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취리-소리’, ‘마루-머루’, ‘구실-구슬’이다. 이 최소 대립쌍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은 ‘ㄱ, ㄴ’, ‘ㅌ, ㄷ’, ‘ㅣ, ㅡ’이다. 이 여섯 개의 모음 중에서 ‘ㅌ, ㄷ, ㅣ, ㅡ’가 평순 모음에 해당하므로 평순 모음은 3개가 아닌 4개이다.

<오답 풀이>

① 추출된 음운 ‘ㄱ, ㄴ, ㅌ, ㄷ, ㅣ, ㅡ’에서 ‘ㄱ, ㄷ’가 전설 모음에 해당하므로 전설 모음은 2개이다.

② 추출된 음운 ‘ㄱ, ㄴ, ㅌ, ㄷ, ㅣ, ㅡ’에서 ‘ㄴ, ㄷ’가 중모음에 해당하므로 중모음은 2개이다.

④ 추출된 음운 ‘ㄱ, ㄴ, ㅌ, ㄷ, ㅣ, ㅡ’에서 ‘ㄱ, ㄷ, ㅡ’가 고모음에 해당하므로 고모음은 3개이다.

## 고 3

⑤ 추출된 음운 ‘기, ㄱ, ㅏ, ㅑ, ㅣ, ㅡ’에서 ‘ㄱ, ㅏ, ㅑ, ㅡ’가 후설 모음에 해당하므로 후설 모음은 4개이다.

<TIP>

이 문제는 음운의 개념과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를 찾고, 최소 대립쌍에서 뜻을 구별해 주는 모음들을 추출하여 각 모음이 어떤 종류인지 제시된 표 [B]에 대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2. <답> ②

<정답률> 67%

<정답 및 오답 풀이>

‘이러한 차이’란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합성어의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은 받침 ‘ㄹ’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고, ㉡은 받침 ‘ㄹ’이 탈락하는 경우이고, ㉢은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쌀가루(쌀+가루)’, ‘술방울(술+방울)’이고, ㉡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술(물+술)’, ‘푸나무(풀+나무)’이고, ㉢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선달(설+달)’이다. <보기>에서 ‘날알(날+알)’은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과 관련이 없는 단어이다.

<TIP>

이 문제는 단어의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받침 ‘ㄹ’이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한 후, <보기>의 단어들 중 ㉠~㉢과 유사한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면 된다.

13. <답> ⑤

<정답률> 51%

<정답 풀이>

5문단의 ‘받침 ‘ㅅ’과 ‘ㅈ’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를 통해 ‘술’과 ‘뭉’이 각각 ‘ㅅ’과 ‘ㅈ’으로 되는 과정에서 ‘ㅅ’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자료]를 통해 중세 국어의 ‘술’과 ‘저’가 자립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문의 5문단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틀’과 ‘날’ 사이에 ~’를 통해 중세 국어 ‘이틀’도 자립 명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자료]에서 ‘술로 밥을 뜨다’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고 ‘밥 한 술’은 문법에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술’은 자립 명사가 아니고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자료]를 통해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인 ‘수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수저’는 현대 국어의 수저로 이어졌다.

③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 ‘이틀’이나 ‘물’은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자료]의 ‘술 ㄱ’, ‘젓가락 ㄱ’을 통해 ‘술’과 ‘저’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할 때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에서는 ‘이튿날’로 적는 것은 ‘ㄷ’이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뭇사람’처럼 ‘이튿날’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술가락’으로 적는 것은 ‘이튿날’과 마찬가지로 ‘ㄷ’이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TIP>

이 문제는 국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의 예문을 통해 ‘술→숫가락→술가락’으로의 변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술’의 차이점, [A]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14번 문법 이론: 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접문장-안은문장)

• 문장 성분의 갈래

주성분 (필수 성분)	주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서술어	‘어찌한다, 어떠한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부속 성분 (수의 성분)	보어	주어가 아닌 것으로 ‘되다, 아니다’ 앞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관형어	체언을 수식하는 말
독립 성분	부사어	용언을 한정하는 말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

(참고) 서술어의 자릿수 :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

갈래	의미	예
한 자리 서술어	주어를 꼭 요구하는 것으로, 성상 형용사, 자연의 작용, 사건의 발생 등을 나타내는 자동사가 이에 속한다.	장미꽃이 <u>블다</u> . 비가 <u>내린다</u> . 전쟁이 <u>일어났다</u> .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필수 부사어를 꼭 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타동사, 대칭 동사, 이동 동사, 소유·주관성 형용사 등이 이에 속한다.	나는 철수를 <u>사랑한다</u> . 철수와 영희가 <u>결혼했다</u> . 고래는 물고기가 <u>아니다</u> . 그는 미국으로 <u>떠났다</u> . 책이 연구실에 <u>있다</u> .
세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외에 필수 부사어를 꼭 요구하는 것으로 수여 동사, 발화 동사, 사동사 등의 특수한 타동사가 이에 속한다.	나는 동생에게 책을 <u>주었다</u> . 그는 나에게 진실을 <u>말했다</u> .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u>먹였다</u> . 그는 나를 바보로 <u>간주했다</u> .

• 접문장

(1) 접문장의 정의

한 개의 홑문장이 한 성분으로 안겨 들어가서 이루어지거나, 홑문장이 여러 개 이어져서 여러 겹으로 된 문장.

(2) 접문장의 갈래

갈래	의미	예
----	----	---

안은 문장	문장 속에 다른 홑문장이 성분으로 들어 있는 문장	우리는 이제서야 <u>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u>
이어진 문장	홑문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여러 겹으로 된 문장	<u>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u> ,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았다.

• 안은문장

(1) 안김과 안음

안김 문장	한 문장이 절의 형태로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안김
안음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겹의 전체 문장

(2) 명사절로 안김

① 명사절의 구실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구실을 함.

② 명사절의 성립

성립	예
명사형 어미 ‘-(으)ㄴ’ 이 붙은 명사절	그가 <u>돈이 많음이</u> 알려졌다.(주어절) 우리는 그가 성실한 학생임을 알고 있다.(목적절)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어린 애가 <u>그런 일을</u> 하기는 쉽지 않다.(주어절) 네가 <u>꼭 합격하기를</u> 바란다.(목적절)
관형사형 어미 ‘-는/-ㄴ’ + ‘것’으로 된 명사절(‘것’ 명사절)	지구가 <u>둥글다는 것이</u>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주어절) 나는 <u>그가 성실한 것을</u> 잘 알고 있다.(목적절) 기온은 <u>식물이 자라는 것과</u> 관계 있다.(부사절)
‘-느냐/-(으)냐, -는가/-(으)ㄴ가, -는지/-(으)ㄴ지’ 등의 종결 어미로 끝난 문장은 그대로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이제부터 <u>네가 어떻게 하느냐(하는가, 할지)</u> 가 문제다.(주어절)

(3) 서술절로 안김

① 서술절의 구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함.

② 서술절의 성립

성립	예
서술절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의 일부분이거나 그 소유물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이 <u>글씨가 너무 작다.</u> 코끼리는 <u>코가 길다.</u>

(4) 관형절로 안김

① 관형절의 구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함.

② 관형절의 성립

갈래	성립	예
긴 관형절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 + (-고 하)는	나는 <u>그가 우리를 위해 애썼다(고 하)는</u> 말을 들었다.
짧은 관형절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는, -ㄴ, -르, -던)	<u>그가 우리를 도와 준</u> 일을 잊지 맙시다.

③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갈래	의미	예
동격 관형절	한 문장의 성분을 갖춘 관형절로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의 일부로서 뒤에 오는 체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생략이 불가능하다.	네가 <u>깜작 놀랄</u> 일이 생겼다. 나는 ( <u>내가</u> ) 그에게 책을 <u>빌려준</u> 기억이 없다.
관계 관형절	성분 중의 하나가 생략되는 관형절로서, 꾸밈을 받는 체언이 생략된 성분과 같다. 짧은 관형절로 이루어진다.	그는 <u>이마에 흐르는</u> 땀을 씻었다.(주어 생략 : 땀) 이것이 <u>충무공이 쓴</u> 난중 일기다.(목적어 생략 : 난중 일기) 저곳이 <u>내가 책을 산</u> 서점이다.(부사어 생략 : 서점)

④ 꾸밈을 받는 명사와 관형절

성립	예
긴 관형절 + '소문, 인상, 제안, 질문, 낭설, 보도, 정보,...'	나는 <u>그가 사업에 실패했다</u> 는 소문을 들었다.
짧은 관형절 + '기억, 사건, 경험, 용기, 줄, 수,...'	너는 전에 <u>그를 만난</u> 기억이 나니?
'사실, 목적, 약점, 결심, 욕심,...' 등의 명사는 둘 다 가능하다.	너는 <u>그가 죽은(죽었다는)</u> 사실을 아니?

(5) 부사절로 안김

① 부사절의 구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② 부사절의 성립

성립	예
용언에서 파생된 부사 ‘없이, 같이,	‘없이’ 비가 <u>소리도 없이</u> 내린다. ‘같이’ <u>예상했던 것과 같이</u> 우리 편이 이

고 3

달리' 등이 서술어 노릇을 하여 부사 절을 형성	'달리'	졌다. 그 아이가 <u>형과는 달리</u> 사교에 능 하다.
----------------------------------	------	---

(참고) 부사절로 볼 수 없는 것

'-듯이, -게, -도록' 등이 붙어 서 이루어진 절은 <u>종속적으로 이 어진 문장으로</u> 취급한다.	차가 지나가게, 이 물건을 치 워요.
	눈물이 <u>비오듯이</u> 흐른다.('흐 른다' 생략)
	바람이 <u>통하도록</u> 창을 열었 다.('창에' 생략)
	저 사과가 <u>맛이 있게</u> 익었다. ( '사과가' 생략)

(6) 인용절로 안김

① 인용절의 구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김.(통사상으로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어로 본다.)
--

② 인용절의 성립

갈래	의미	예
직접 인용절	직접 인용 조사 '라고, 하고' 를 붙여서 만드 는데, '하고'가 쓰 이면 말소리나 억양까지 흉내 내는 것을 나타 낸다.	윤희가 <u>"난 저렇게 큰 별은 처 음 봤어!"</u> 라고 말했다. 영신은 <u>"여러 학생들, 조용히 들어요!"</u> 하고 말했다.
간접 인용절	간접 인용 조사 '고'를 붙여 만 드는데, 본디 문장의 종결 어 미가 변한다.	평서문 ,감탄 문 누구나 <u>인간은 존엄하 다</u> 고 믿는다. 선생님은 <u>철수가 모범 생이라고</u> 하셨다.
		의문문 비가 <u>오느냐고</u> 물었다. <u>날씨가 맑으냐고</u> 물었 다. <u>어떤 책이 좋은 책이 냐고</u> 물었다.
		청유문 철수는 <u>이웃 돕기 성 금을 건자고</u> 제의했다.
		명령문 선생님은 <u>청소를 깨끗 이 하라고</u> 강조하셨다.

(7) 문장의 안김과 성분의 생략

문장의 안김과 성분의 생략	예
한 문장이 절의 형태로 큰 문 장 속에 안길 때, 안김문장의 성분이 그것을 안은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면 그 성분은 생 략될 수 있다.	나는 (내가) 집에 가기가 싫다. 선생님은 철수를 (철수가) 부 지런하다고 칭찬하셨다.

14. <답> ③

<정답률> 75%

<정답 풀이>

㉔는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와 '별이 반짝이다.' 두 문장으로 이루  
어진 문장이다. 전자가 안은문장이고 후자가 안김문장인데, '별을'  
은 안김문장이 아닌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다. 안김문장에는 목적어  
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㉔의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그는' 이외에 목적어 '위기를'과  
부사어 '기회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② ㉔에서 안은문장은 '바다가 파랗다.'이고, 안김문장은 '눈이 부  
시다.'이다. 주어 '바다가'의 서술어는 '파랗다'이고, 주어 '눈이'의  
서술어는 '부시다'이다.

④ ㉔에서 안은문장은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이고 안김문장  
은 '기회가 좋다.'이다. ㉔에서 안은문장은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  
이고 안김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㉔의 '좋은'과 ㉔의  
'반짝이는'은 안김문장의 서술어이다.

⑤ ㉔의 '눈이 부시게'는 '파랗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㉔의 '반  
짝이는'은 '별'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따라서 ㉔의 '눈이 부시  
게'와 ㉔의 '반짝이는'은 모두 수식의 기능을 한다.

<TIP>

이 문제는 문장의 짜임새를 묻는 문제이다. ㉔~㉔를 안은문장과  
안김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개념  
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15. <답> ⑤

<정답률> 39%

<정답 및 오답 풀이>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인 '발개'와 '바투' 중 '발개'는 형용사 '발  
다'의 활용형이므로 ㉔에는 부사 '바투'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㉔에는 ㉔과 ㉔ 중 하나가 들어가야 하는데 ㉔는 '두 대상이나 물  
체의 사이(물리적 거리)가 썩 가깝게'를 뜻하는 '바투'가 들어가야  
하므로 ㉔이 ㉔에 들어가야 한다. ㉔의 '바투'는 '시간이나 기이가  
아주 짧게.'를 뜻하므로 '바투'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또한 ㉔에  
는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를 뜻하는 '발다'의 활용  
형 '발개'가 들어가야 하므로 ㉔에는 ㉔과 ㉔ 모두 들어갈 수 있  
다. ㉔은 시간, ㉔은 공간이 가깝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TIP>

이 문제는 품사의 개념과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45문항 중 오답률이 3번째로 높았던 문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㉔에 들어갈 적절한 말로 부사 '발개'를 선택했다. 단순히 ㉔의 뜻  
풀이가 '~게'로 끝나기 때문에 '발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형  
용사가 부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16~20] 독서-사회

[지문 분석]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  
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계약  
이 아님.)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  
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약속과 계약의 공통점)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계  
약이 약속과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

했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집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발생한 법률 효과)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짐.)

1문단: 약속과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따라서 계약은 법률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채권과 채무의 개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변제의 개념)을 변제라 한다.

2문단: 법률 행위의 일종인 계약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채무자, 매도인)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채권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을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3문단: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을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을이 그림을 인도해주기 싫다고 해도)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을이 갑에게 그림을 인도하도록 하여) 채권(갑이 을에게 그림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4문단: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인 '강제 집행'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을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인도할 수가 없음.)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

을 담고 있기 때문에(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문단: 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을 소실했을 경우와 계약 체결 전 매매 목적물을 소실했을 경우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의도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채무가 불이행되는 것) 매매 목적물(그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을이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아도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을의 의사)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양 당사자가 아닌 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라 한다.

6문단: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갑이 갖게 되는 계약 해제권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을에게 지급된 대금 전액은 다시 갑에게 돌려 줘야함.)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갑은 을에게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짐.)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7문단: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갖게 되는 원상회복 청구권

• 주제: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지문 확인]

1문단: 약속과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 약속과 계약의 공통점: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함.
- 약속과 계약의 차이점: 계약에서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임.

2문단: 법률 행위의 일종인 계약

- 법률 행위: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계약도 법률 행위의 일종임.
- 채권: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채무: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
-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고 3

3문단: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

- 을이 소유한 그림을 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함.  
(이때 갑은 채권자이자 매수인이고, 을은 채무자이자 매도인임.)
- 갑은 을에게 그림을 인도 받기 전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그림을 인도하지 않음.  
(이때 갑은 을에게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

4문단: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인 ‘강제 집행’

- 갑은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같은 절차법에 따라 을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강제 집행: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5문단: 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을 소실했을 경우와 계약 체결 전 매매 목적물을 소실했을 경우

- 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그림)을 소실했을 경우: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됨. 소송을 하더라도 채무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없음.
- 계약 체결 전 매매 목적물(그림)을 소실했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임.
-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이행 불능이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6문단: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갑이 갖게 되는 계약 해제권

-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갑은 계약 해제권을 갖게 됨.
- 계약 해제는 갑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고 함.

7문단: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갖게 되는 원상회복 청구권

-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됨.
- 이미 이행된 채무가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함.

16. <답> ③

<정답률> 50%

<정답 풀이>

2문단의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를 통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통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6문단의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를 통해 의사 표시가 작용하지 않아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없어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와 4문단의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를 통해 청

구권의 내용은 실체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4문단의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를 통해 채권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절차법에는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갑은 ~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를 통해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를 통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임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답인 선지 ③의 경우 근거 문장이 지문의 2문단과 6문단에 나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근거 문장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문을 읽을 때 각 단락의 핵심어를 표시하며 읽었다면 근거 문장을 찾는 것이 보다 쉬웠을 것이다.

17. <답> ⑤

<정답률> 56%

<정답 풀이>

3문단의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를 통해 ㉠에는 물건(그림 A)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계약을 해제한 후 갑이 가지는 채권이다.(계약 해제 전 갑이 가지는 채권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임.) 7문단에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으므로, 즉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매도인인 을은 매수인인 갑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매수인인 갑은 매도인인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문단에서 을의 채무(㉠)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은 매수인의 청구와 매도인의 (의무) 이행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② ㉡은 갑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원상회복 청구권)이다. 6문단의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를 통해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 없이 작용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갑은 계약 해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 없이 작용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 없이 성립한 것이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은 을이 그림 A를 소실하면서 이행 불능이 된다. 7문단의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를 통해 ㉠이 이행 불능이 된 결과로 ㉡이 성립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이행된 결과로 ㉡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행되었다면 ㉡은 생성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④ 2문단에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은 계약을 체결한 후의 상황이고, ㉡은 계약이 무효된 상황이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므로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TIP>

이 문제는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채무와 갑의 채권을 하나의 선상에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묻는 ‘갑의 채권(㉡)’은 계약을 해제한 후 갑이 가지게 되는 권리임을 파악해야 한다. (‘을의 채무(㉠)’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 을이 가지는 의무이다.)

18. <답> ①

<정답률> 80%

<정답 풀이>

5문단에 따르면 ㉠의 원인은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5문단의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와 6문단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를 통해 을의 과실로 인한 채무 이행 불능으로 인해 갑이 계약 해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5문단의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를 통해 갑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림 A는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 또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림 A의 소유권의 이전 및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그림 A는 을이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것이다. 즉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갑과 을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에 일어난 경우가 갑과 을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 그림 A는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5문단의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를 통해 그림 A가 을의 과실로 소실되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을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채무 불이행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 소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과 계약 체결 전 매매 목적물 소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19. <답> ③

<정답률> 51%

<정답 풀이>

2문단에 따르면 채무는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이고,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의 내용(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이행하면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함’과 2문단의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 한다.’를 통해 매매는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과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를 통해 증여와 유언 역시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계약은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보기>의 증여는 계약이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유언 역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여와 유언은 모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매매는 양 당사자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인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가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 있어도 성립한다. 따라서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TIP>

이 문제는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의 ‘의사 표시’, ‘이행 의무’, ‘법률 효과’ 등의 키워드를 읽으면서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고 지문의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한다.

20. <답> ①

<정답률> 94%

<정답 풀이>

㉠ ‘나올’의 의미는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김다.’이다.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에서의 ‘나왔다’이다.

<오답 풀이>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에서 ‘나오니’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길으로 드러내다.’의 의미이다.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에서 ‘나오는’은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다.’의 의미이다.

## 고 3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에서 ‘나오는’은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의 의미이다.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에서 ‘나왔다’는 ‘상품이나 인물 따위가 산출되다.’의 의미이다.

<TIP>

이 문제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을 포함한 문장이 ‘~ 판결은 나올 수 없다.’이기 때문에 ㉠의 ‘나올’ 앞에는 판결(결과)과 성질이 같은 주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파악한 후 ①~⑤의 주어의 성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 본 해설 자료는 홍보용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20번까지만 제공됩니다. 21번부터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카데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모든 불법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캡처되고 있습니다.

### 등급컷

등급	원점수
1	84
2	78
3	70
4	61
5	51
6	41
7	31
8	22